

— Sat-159 —

다발성 원발성 악성종양 46예의 임상고찰

중앙의대 내과 박은경, 권정혜, 이정희, 이상재

중복암은 한 환자에서 2개 이상의 암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국내에서 중복암에 대한 연구는 간간이 있었으나 주로 종례 위주의 보고였다. 국내의 중복암 발생률은 권등이 0.26%, 김등이 0.3%, 최등이 0.7% 등으로 다양한 보고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최근까지 중복암에 대한 임상고찰을 새롭게 하여 과거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1985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중앙대학병원에 암등록한 10,305명중 중복암으로 확인된 46명을 대상으로 임상기록지를 통해 발생빈도, 성별, 연령, 발생부위, 발생간격, 발생인자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1) 전체 암등록 환자 10,305명 중 46명으로 0.446%의 발생률을 나타냈으며, 남자가 36명, 여자가 10명이었다. 중복암환자의 평균연령은 59세였다. 남녀 발생비는 3.6:1이었다.

2) 총 46예중 동시성(synchronous)이 19예, 속발성(metachronous)이 27예였고, 암발생간격은 0 ~ 96개월로 평균 28.5개월이었다.

3) 발생부위로는 위암과 비소세포성폐암이 7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방암과 대장암, 위암과 식도암, 비소세포성폐암과 자궁암, 두경부암과 비소세포성폐암, 급성골수구성백혈병과 비소세포성폐암이 각각 2예씩이었고, 기타 모두 1예씩이었다. 삼중복암이 2예 있는데, 방광암, 전립선암, 소세포성폐암이 1예, 자궁경부암, 유방암, 비소세포성폐암이 1예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의 조사기간은 17년 9개월로 이전 보고에 비해 길었고,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 Sat-160 —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발생한 요근농양 1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성상석, 박성현, 오호석, 최정혜, 이명렬, 김인순, 최일영, 안명주

Psoas abscess is caused by primary or secondary and most commonly results from direct extension of intraabdominal infections. *Staphylococcus aureus* is the most common organism for psoas abscess secondary to vertebral osteomyelitis. Tuberculosis, malnutrition, alcoholism, diabetes mellitus, bone marrow failure, and steroid use are responsible for compromise in host defense and consequent increase in the relative risk of psoas abscess. We report here a case of bilateral psoas abscess developed in a 58 year old patient with relapsed plasmacytoma in pelvic cavity during chemotherapy.